

# 벌써 3주기... 화폭 속 한국 전통·산천 기운 새기다

오승우 화백 대표 소장품들 6일부터 선봬

조선대 미술관 김보현&실비아올드 전시관  
땅의 명산부터 심장생까지 회화 23점 출품

평생 구상과 인상주의 화풍을 기초로 인간과 자연의 근원을 탐구하며 천착하는 한편, 한때 불교적 색채와 명산 기행의 화폭 투영, 그리고 국내외 고건축물을 화면에 반영,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펼치는 등 근대·현대 회화사의 거목으로 평가 받고 있는 그가 떠난지도 벌써 3주기(4.3)를 맞았다. 3주기를 앞두고 그의 작품세계를 다시 오롯하게 되새겨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조선대 미술관(관장 김일태)이 오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김보현&실비아올드 전시관 1~3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오승우(1930~2023) 화백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소장품전이 그것. 한국 근현대 서양화단의 독보적인 지평을 열었던 그는 국내 토양에 맞는 빛과 색채를 통해 한국적 인상주의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은 근대·현대 회화사의 거목인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장남이자 선친의 뒤를 이은 서정적 자연주의 풍경화가로 화단에 깊이있게 각인된 위상을 구축한 동시에 선친과 더불어 2대에 걸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활동을

펼치는 내내 회화의 중심에 서는 인물로 평가됐다.

그래서 이번 소장품에 거는 기대가 작지 않다. 출품작은 황석산(黃石山), 속리산(俗離山), 심장생도(心長生圖), 자화상(自畫像) 등 회화 23점.

‘풍경 너머의 세계: 오승우의 시선, 그 여정’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승우 화백이 모교 조선대의 발전과 후학들을 위해 기증한 작품 29점 중 23점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이번 전시는 2017년 작품을 기증받아 9년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전시로, 자연과 문화 그리고 한국의 전통을 평생에 걸쳐 탐구해 온 작가의 예술적 여정을 집약적으로 소개하며, 주요 작품들을 통해 그의 시선이 어떻게 확장되고 심화돼 왔는지를 보여준다.

전시는 오 화백의 시선이 확장되고 심화되는 과정에 따라 총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한국의 사찰과 고궁 그리고 전국 130여 개의 산을 직접 오르며 완성한 ‘100산 시리즈’ 중 마이산,



‘심장생도’

속리산, 황석산 등 한국의 전통과 산천의 기운을 담아낸 초기 작업을 통해 작가의 예술적 출발점을 조명한다.

이어 두번째 파트에서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기록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단순한 풍경 재현을 넘어 각 민족의 역사와 정신적 유산을 강렬한 색채로 담아냈으며, 생생한 관찰 기록인 드로잉들도 함께 볼 수 있고, 세번째 파트에서는 현

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심장생 시리즈’를 중심으로 그의 후기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우리 땅의 명산에서 시작해 세계 문명을 거쳐, 마침내 내면의 이상향인 ‘심장생’에 도달하기까지의 장대한 여정을 따라간다.

김일태 관장은 “2017년 기증 당시 화백께서 보여주신 모교에 대한 각별한 애



‘속리산’

정과 숭고한 예술 정신은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있다. 이번 전시는 오승우 화백이 평생에 걸쳐 탐구해 온 전통과 자연의 존재를 향한 경의를 담아낸 기록”이라며 “관람객들이 화백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땅의 승결과 세계 문명의 장엄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마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선대 예술과를 졸업한 뒤 생전 인간의 삶의 근거인 자연을 통해 도출된 문화와 정신에의 지속적인 탐구를 시도했다.

화면에는 밝고 화사한 색채와 무겁고 둔중한 색채가 교차하거나 공존했으며

자연과 전통을 정신적으로 녹여내는 등 자신만의 독창적 회화를 구축해 냈다는 반응이다. 대표작으로 ‘법당 내부’를 비롯해 ‘미륵불’, ‘민속놀이’, ‘소싸움’, ‘심장생도’ 등 다수를 남겼다. 그의 동생은 전 전남대 예술대학 교수를 역임한 오승윤 회가로 남도 대표적 미술집안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편 전시는 프리오픈으로 진행되며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선대 본관 1층에 위치한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에서 관람 가능하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무료.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아기랑 ‘생애 첫 극장 나들이’ 가볼까

영유아들의 생애 첫 극장 경험을 위한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오는 5월 36개월 이하의 영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더 어린 관객을 위한 극장’ 사업을 통해 개별 ‘흔들흔들 우주’와 ‘봄·여름·가을·겨울 슴슴스름’ 두 작품을 차례로 어린이극장 무대에 올린다.

‘더 어린 관객을 위한 극장’은 국립어린이

청소년극단의 ‘지나헤에 이어 기존 어린이, 청소년 관객 이외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선보여 의미가 깊다’면서 “생애 최초로 극장을 찾는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매 및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료는 전석 2만원.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요문화전당,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공동제작 2편

내달 ‘흔들흔들 우주’·‘봄·여름·가을·겨울 슴슴스름’ 등

이 청소년극단이 지난 2018년부터 영유아 공연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연구·개발·창작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6개월 이하 영유아와 동반 보호자로 공연의 참여 대상을 확장해 언어 이전의 것을 통해 감각을 일깨우고 새로운 극장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지난해 ACC가 공동제작에 참여해 시범 공연을 거쳐 올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올해는 광주 ACC 뿐만 아니라 서울 종로 아이들극장, 노원 어린이극장으로 무대를 확장해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오는 5월 2~3일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일 연극 ‘흔들흔들 우주’는 나주에 근거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 전문 극단 ‘마실’ (연출 손혜정)의 작

품이다. 임신·출산·양육의 과정 경험한 연출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드넓은 우주에서 이루는 두 사람만의 여정’에서 임신부, 보호자와 아기가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움직임 연극을 선사한다. 이어 오는 5월 9~10일 무대에 오르는 ‘봄·여름·가을·겨울 슴슴스름’은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온몸’(안무 진향래)이 참여했다. 자연의 소리와 리듬, 동

## 서사적 화면·감각적 세계 밀도있게 경험

이형우 초대전 10일까지 광주아트센터서  
출품작 회화 25점... ‘진행형 전시’ 운영 주목

이형우 작가의 초대전이 오는 10일까지 광주아트센터 전시장에서 열린다. 지난 3월 19일 개막된 이번 전시는 ‘VOYAGER’를 주제로 인간 존재와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 있다.

출품작은 대표작 ‘VOYAGER’를 중심으로, 300호 대작 ‘최후의 농담’, 200호 규모의 ‘동물농장’을 포함한 총 25점과 드로잉, 대형 회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작가의 서사적 화면과 감각적 세계를 밀도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획은 남궁윤 예술총감독이 맡았다.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이 작가의 작업은 익숙한 형태를 기반으로 하지만 어딘가 비틀렸고, 인물과 동물은 현실과 허구의 경계 위를 유영하며 화면 안에서 독특한 장면들을 만들어낸다.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질, 의도적으로 예측된 형상은 관람자로 하여금 ‘이해’ 이전에 ‘감각’으로 작품에 접근하도록 이끈다.

그의 작업은 단순히 화면에 드러나는 이미지로만 이해되기 어렵지만 형식이나 서사를 통해 설명되기도, 작가의 삶 태



‘Voyager’

도와 감각에서 비롯된 결과물에 근접하고 있다. 그의 화면에 등장하는 비틀린 형상과 어긋난 장면들은 특정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로 드러난다. 이는 논리적으로 정리된 구조라기보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축적된 감각과 충동, 그리고 태도

의 흔적이라는 설명이 오히려 설득력이 높다.

작가에게 회화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 그의 작업은 삶과 분리된 결과물도 아니라, 그가 세계를 바라보고 통과하는 시간의 축적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태도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그 감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일에 가깝다. 그의 회화는 설명되기도,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후의 농담’은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작업으로, 인간 존재의 양면성과 모순을 유머와 아이러니 속에 풀어낸다. 종교적 상징을 차용하면서도 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은 작가 특유의 시선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또 ‘동물농장’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뒤섞으며 사회적 관계와 존재의 구조를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으로, 작가의 주요 세계관을 확장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번 전시는 고정된 형태의 전시가 머무르지 않고, 전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진행형 전시’로 운영된다. 작가는 매주 새로운 드로잉 작업을 제작해 전시장에 추가하며, 관람객은 방문 시점마다 서로 다른 장면과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피아노·현악기로 낭만 담은 실내악 선사

시향 체임버 시리즈II 23일 요문화전당

광주시향교향악단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에서 체임버 시리즈II ‘April Romance’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향 단원 바이올린 이준, 비올라 양신애, 첼로 나유빈과 피아니스트 이철민이 출연해 피아노와 현악기가 어우러지는 실내악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April Romance’는 봄의 따뜻한 정서와 낭만적인 감성을 담은 실내악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 슈만과 러시아 작곡가 아렌스키의 작

품을 통해 서로 다른 음악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실내악을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연의 문은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 1번 E♭장조 Op.47’이 연다. 이 작품은 슈만이 ‘실내악의 해’로 불리는 1842년에 작곡한 작품으로, 피아노와 현악기가 결합된 대표적인 낭만주의 실내악곡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서로 연결된 주제적 연관성을 지닌 각 악장, 피아노와 현악기가 균형있게 어우러지는 구성이 특징이다. 특히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는 이 작품의 중심으로 구성된다.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 슈만과 러시아 작곡가 아렌스키의 작



이여 연주되는 아렌스키의 ‘피아노 삼중주 1번 D단조 Op.32’가 울려 퍼진다. 이는 아렌스키가 첼리스트 카를 다비도프를 추모해 1894년에 작곡했다. 피아노와 바

이올린, 첼로 편성으로 이뤄졌으며, 추모곡의 성격과 함께 러시아 낭만주의 특유의 선율적 특징이 담겼다. 3악장과 4악장은 작품의 주요 주제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느린 악장과 빠른 악장의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광주시향은 피아노와 현악기가 함께하는 실내악 편성을 통해 봄의 정서와 낭만적인 분위기를 전하는 한편, 실내악이 들려주는 섬세한 선율 속에서 음악이 전하는 진솔한 고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II ‘April Romance’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Yes 24에서 예매할 수 있다. 초등학생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다. 입장료는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41.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